제 1579호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media.khu.ac.kr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5 ≫ 국제캠 SPACE21사업 정상궤도 오르나

8 ≫ 인터뷰 : '낙서' 수집가 도민호(조경학 2005 동문)

학사다이어리 –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 **개설과목확인** : 11. 17일
- **수강신청** : 12. 11(목) ~ 12. 15(월)
- **등록금 납부기간** : 12. 16(화) ~ 18(목)
- **수업기간** : 2014. 12. 22(월) ~ 2015. 1. 14(수)
- **수업료** : 1학점 당 8만 9,000원

조 총장, 총장 선임절차 논란 사과 … 구성원과 대화 약속

총장선임 절차 논란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조인원 총장이 지난달 31일 진행된 '제15대 총장 선임' 과정에 대해 "의도하지 않게 학생들 마음을 상하게 해 미안하다"며 "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또한 오는 19일 전후로 "구성원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6일 진행된 조 총장과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박이랑(사학 2008) 회장 간 면담에서 진행된 것이다.

조 총장은 총학 박 회장과의 면담에서 총장선출제도뿐만 아니라 대학 전반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까지 함께 진행해, 이사회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개방이사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 등을 법인에서 검토하도록 제

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계약 사항과 수입 정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총장 선출 논란은 '법적 정당성' 차원이 아닌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가 전혀 없었던 데' 그 원인이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도록 돼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중 제1관 임면'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 조인원 총장이 사립학교법 상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앞선 조항에 따른 임명은 '합법'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1항'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개월 간 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열린 4차 이사회 회의록이 지난 4일에서야 공개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학전반에서 제기된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에 배치돼 논란을 불러왔다.

▶4면으로 이어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평균보다 '19.6%pt' 낮다

대학알리미 재정건전성 평가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우리학교의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경쟁대학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6.8%를 기록해, 하위 30~1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대학 재정 및 회계지표'가 지난 3일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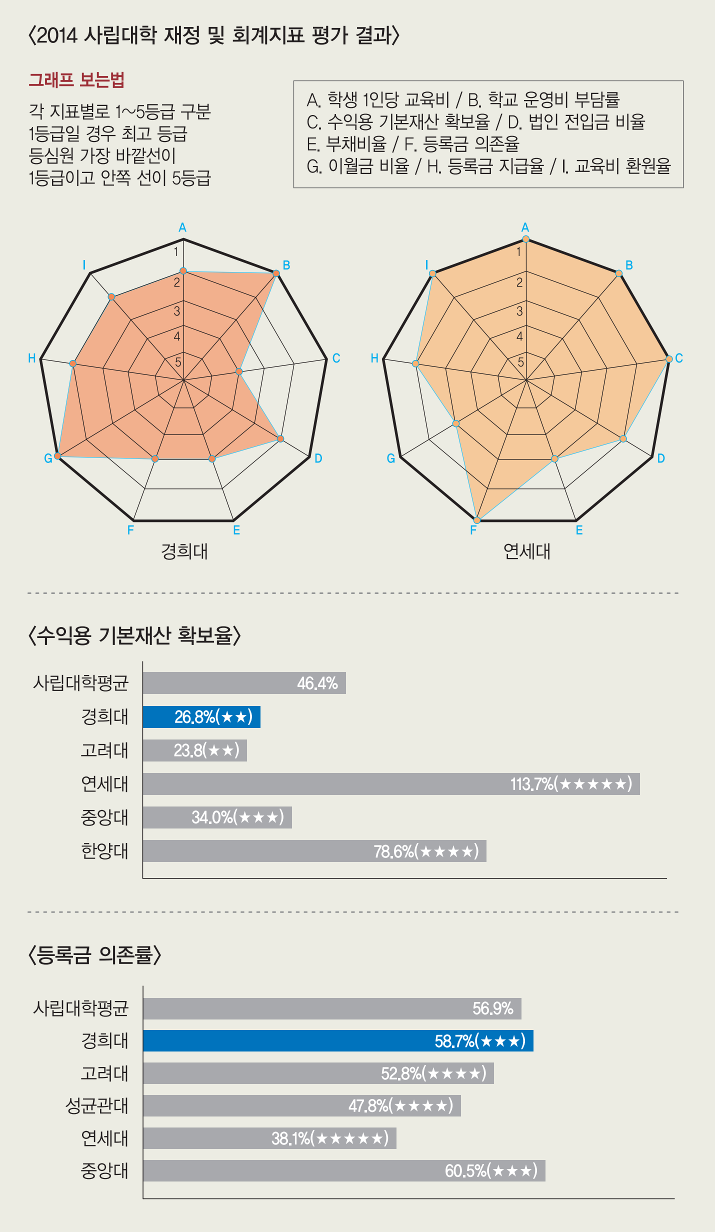
이번에 공개된 지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항목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었다. 우리학교는 19.6%를 기록해, 사립대학 평균인 46.4%에 비해 19.6%pt 낮았다. 특히 1등급을 받은 연세대(113.7%)와 비교하면 86.9%pt 낮은 수치이다.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기준치(학생수 X 20만 원)'에 비해 얼마나 확보됐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을 감안할 때, 우리학교의 재정건전성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문이다.

등록금 의존률과 부채비율도 다소 저조한 성적인 3등급을 받았다. 두 항목 모두 사립대학 평균인 56.9%와 3.4%보다 높은 58.7%와 3.64%를 기록했다. 등록금 의존률의 경우 38.1%로 1등급을 받은 연세대에 비해서 20.6%pt 높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재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인전입금은 모두 2등급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사립대학 평균인 1,263만 원 보다 350만원 많은 1,613만 원을 기록했으나, 1등급을 받은 연세대(2,677만 원)나 성균관대(2,175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교육비 환원율 역시 191.1%로 사립대학 평균 168.9%를 웃돌았지만, 연세대(284.5%), 성균관대(231.2%)보다 저조했다. 장학금 지급률은 사립대학 평균 21%보다 높은 24.4%를, 법인전입금 비율은 사립대학 평균 4.5%보다 높은 6.63%를 기록했다.

1등급을 받은 이월금 비율은 0%를 기록했다. 사립대학 평균은 4.5%였다.

▶3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주거문제 공동대책위원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위원장

"주거문제 해결 앞장서야 할 구청이 임대업자 눈치만 살피고 있다"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 서울캠퍼스 공공기숙사 문제가 행정심판 국면까지 접어든 가운데, 학생들의 주도적 움직임이 눈에 띈다. 특히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발족 이후, 지난달 30일 동대문구청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등을 찾는 '기숙사 버스투어'를 운영해 공공기숙사 건립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번 주 기숙사 버스투어 당시 제안한 '면담'이 진행됐다. 공대위 강필준 위원장을 만나 공공기숙사와 관련한 폭넓은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시의회까지 거쳐 통과한 환경영향평가를 이제와 문제 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공대위 강필준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기숙사 지연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임대업자 눈치를 보느라 궁색한 변명거리를 찾다가 이미 끝난 환경영향평가를 걸고 넘어지는 것 아니냐"는 다소 강경한 발언도 내놨다.

그가 공공기숙사 건립에 앞장서 소리 내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입학 후 제주도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고모 집에서 통학하던 강 위원장은 이후, 기숙사 생활부터 하숙을 경험했고 지금은 학교 근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그가 경험했던 통학과 자취생활에는 다른 학생들의 그것처럼 고충이 상당했다. 특히 직접 기숙사에 살아봤던 만큼 기숙사수용률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대책'이 아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교재비 그리고 용돈도 모자라, 방세까지 부모님께 손 벌려야 한다"라며, "특히 기숙사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학생이 누려야할 '주거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청과 학교가 더욱 책임지고 힘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5면으로 이어짐

고대 중국의 문학과 철학의 보고(寶庫) 《장자(莊子)》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㊸

김시천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연구원

『장자』(莊子)는 『노자』(老子)와 더불어 고대 중국의 도가(道家)를 대표하는 문헌으로서, 때때로 이 둘을 묶어 '노장'(老莊) 철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장자』는 전국(戰國) 시대의 맹자(孟子)보다 약간 늦은 장주(莊周)가 지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전체가 장주의 저술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의 사상을 담은 철학 저술로 평가된다.

『장자』는 그 첫 두 편인 「소요유」(逍遙遊)와 「제물론」(齊物論)의 '소요'와 '제물'이 크게 유행될 정도로 동아시아 사상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한대(漢代)에 발흥한 도교 전통과 위진(魏晉) 이래 문학과 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장자』가 늘 동아시아 사랑받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장주가 흔히 전국 시대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지만 『장자』는 전국 시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책이었다.

장자는 동아시아 사상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어떤 이들은 한(漢) 왕조 때 『회남자』를 지은 유안(劉安)이 『장자』를 편찬하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안 이전에 『장자』라는 책은 존재했을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장자』라는 책이 역사 기록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행하기 위해서는 더 뒤늦은 위진 시대를 기다려야 했다. 파란만장한 영웅 소설 『삼국지』(三國志)의 시대가 끝이 날 무렵 등장하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시대에 이르러 『장자』는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장자』는 이 시대에 편집된 책이다.

전통 지식인들의 『장자』에 대한 평가 또한 다양하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제작비 여건상 한 주 휴간합니다.
다음호는 11월 24일 발행됩니다.

대학주보 온라인 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연재됩니다.

media.khu.ac.kr/khunews

대학 특성화사업 칼럼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 서정건 부단장의 '글로벌 리더의 조건' 첫 번째 연재

≫ 6면